

農水産部長官과 함께

지난 8월 5일 은행집회소(명동 Y. W. C. A. 뒷편)에서는 高建 농수산부장관과 농수산부 담당관을 비롯하여 사료업계에서 다수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가 베풀어져 사료축산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검토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이번 대담의 중요내용을 발췌 수록키로 한다. (경어는 생략함) 文責任 記者

이날 조찬회에서의 내용은 실제 사료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업계 전체가 항상 피부로 느껴오던 것들이기에 양축가들의 관심은 더욱 높았다.

일반 상공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업계의 실정과 애로사항을 정부당국에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으나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이런 모임이 너무도 적었던 것 같다.

이제 제 5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민간주도로 흐르고 있어 앞으로는 축산업계도 민간단체를 통한 업계의 현황과 성장발전 저해요인들을 전달하는 정부당국자와의 대화의 광장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참석자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동 축산국장. 동 사료과장.

김일로(축협중앙회장) 정태원(사료협회장) 전용진(사협부회장) 권배(사협전무) 차두홍(한일사료) 김상경(삼양사) 김재수(한성사료) 류근주(천광사료) 오관영(제일사료) 강태현(중

양축산) 정인범(우성실업) 마영호(보거사료) 이의선(금성물산) 김상태(대한사료) 강대준(단미사료협회장) 유동준(단미사료협회 전무)

사료용 곡류 도입제도 개선

☞ 사료용 옥수수 도입창구가 축협중앙회로 일원화되어 있어 축협중앙회에서 일괄도입·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료협회 소요분은 사료협회 측에서 직접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한다.

도입제도의 변천을 보면 '74년 2월 이전의 실수요자단체 구입에서 농협중앙회, 축산진흥회를 거쳐 축협중앙회로 바뀌어 왔는데 이에 는 융통성과 기동성이 결여되어 있어 국제곡물시세의 변동에 따라 신속한 구매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수요자 단체별로 도입(축협과 사협으로 2원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도입자금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도 부탁드립니다.

창구가 2원화되면 적기적량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구매 업무를 간소화시키므로써 기동성과 융통성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현지구매나 수의계약, 선구매 등을 통하여 구매방법을 다양하게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써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하역통관 업무의 일관작업이 가능해져 하역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같은 잇점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계적으로 옥수수를 포함한 모든 원료의 도입창구를 다원화하고 안정기금도 일정율로 부과

답 현재 단계적으로 도입창구를 다원화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이미 옥수수 이외의 곡류 도입권을 사료협회 및 실수요자에게 지난 6월 22일자로 허용하였다.

제 2단계로 사협과 축협이 일정비율로 각각 도입하는 방법을 택하므로써 실수요자 단계별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마지막 단계는 옥수수를 포함한 모든 원료의 도입창구를 다원화하는 단계로 안정기준 가격제도를 철폐하고 일정율 부가제 채택을 검토 중이다.

ADB차관자금 전용

답 축협 사료공장 건설을 위하여 ADB 로 부터 1,300萬\$의 차관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日産 300M/T 규모의 사료공장 4개를 건립하기 위한 자금이다.

현재 사료공장 전체의 가동율은 불과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료공장 건립은 시설과잉으로 인한 가동율 저하를 부채질할 뿐이며 과당 출혈 경쟁을 심화시켜 경

영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군소공장의 도산 가능성까지 빚는 것이다. 또한 거래질서를 문란시켜 배합사료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마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차관자금을 기존공장을 통폐합하고 시설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자금과 부두의 하역저장 시설 확충자금으로 전용할 것을 제의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3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

답 그에 대해 설명키로 한다. 당초 계획했던 4개소 중 2개소만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 (650萬\$ 상당)는 다음 안으로 전용할 것을 EPB(경제기획원) 및 ADB(아시아 개발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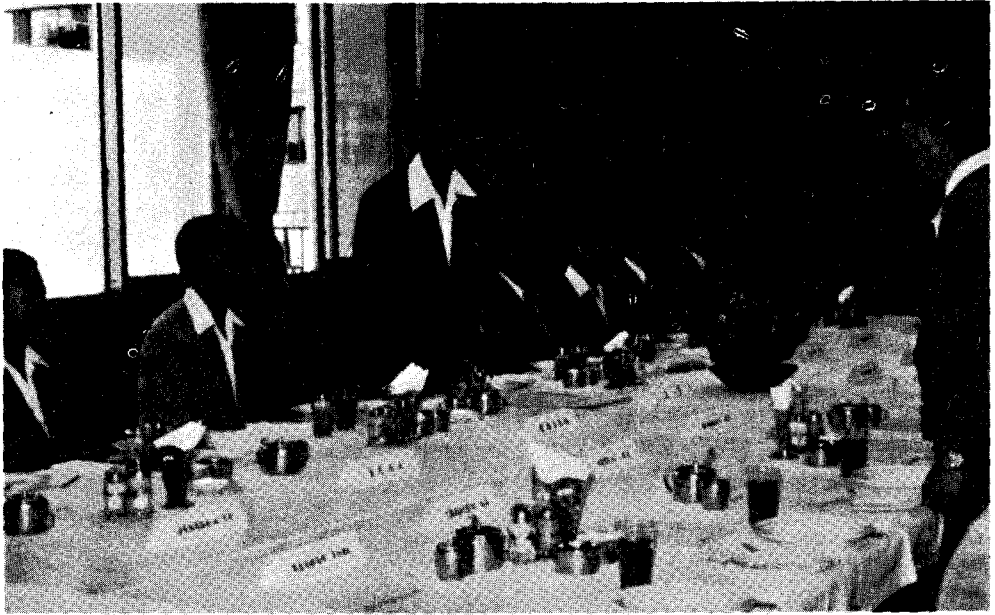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공장당 10억원을 책정하여 영세한 기존공장의 지원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둘째는 부족한 부두하역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2개소 건립자금을 취소해 버린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답 배합사료 및 국내산 부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사료가격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양축가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축산업의 채산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축협은 비영리단체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므로써 사료의 2중 가격이 형성되어 원활한 유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대치되는 일이다.

따라서 배합사료 및 국내산 부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료업계 조찬회(앞으로 축산업계도 이러한 모임을 통해 업계와 정부의 자연스러운 의견소통이 절실하다)

시기적으로 어려우나 기회를 보아 관계 부처와 협의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무 정책이 조세감면 및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선처토록 힘쓰겠다.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 등의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해당부처에서는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도입원료의 도착지 검사제도 강화

▶ 도입원료의 일부가 곰팡이류나 유해미생물에 오염되어 양축가에게 분의 아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곰팡이 및 유해미생물 검사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인데, 가축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의 규명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곰팡이 및 유해미생물에 대한 검사 시설을 강화해 줄 것과 도입원료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 이미 축산시험장과 축협 사료검사소에 필요한 점정시설을 구비할 것을 지시에 놓았다.

도입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강화하여 각종 원료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기타 사항 건의

▶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축산물수급 민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기의 목적 달성토록 행정지원 약속

▶ 좋은 착상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희망하는 바이며 소기의 목

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문 축산물의 가공비축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그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가공비축 희망 업체에는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도 계획 중

답 현재 축협중앙회가 가공비축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다. 희망업체가 있으면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이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문 소맥피 등 강피류의 공평한 배정을 바란다.

문제 있으면 내용검토 후 조치

답 축협에 대한 소맥피 등 강피류 배정상의 혜택부여는 축협 육성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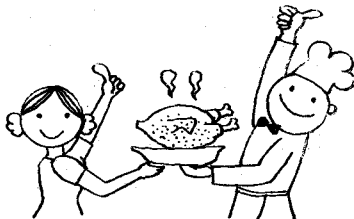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할 생각이다.

문 축협배합사료 가격의 현실화가 요망되는데

축산업이 정상화 될때까지는 현행가격 유지

답 축협사료 공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장인 만큼 축산업의 불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료 가격의 인상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

적자운영을 해서라도 축산업이 정상화 될때까지는 현행가격을 유지할 생각이다.



mein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2 수입 판매
전화 : 792-7212 · 7887 엔지니어링